

명품 '나주 배' 올해 첫 수출길 올라

대미 수출 선적행사... '원황' 총 450톤 물량 출하시, 신규시장 개척 주력... 올해 4200톤 수출 목표



달달한 맛과 풍부한 과즙, 건강과 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

는 대한민국 명품, 세계적인 특산품 '나주 배'가 올해 첫 수출길에 오른다.

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6일 오전 배원협 부덕유통센터 수출과장에서 열린 나주배 대미 수출 선적행사에 참석해, 올해 수출 계획을 점검하고 신별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출 선적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김선용 시의회의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시의원,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 나주시지부장, 배원협장, aT, 수출업체, 검역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올해 첫 수출길에 오른 나주배의 건승을 기원했다.

올해 초 이상 저온 피해와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을 이겨낸 이번 나주 배 품종은 과실이 크고 짙은 맛과 단맛이 일품인 '원황' (圓黃)으로 총 450톤 규모의 물량이 출하된다.

나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미주 및 동남아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중남미, 유럽, 인도네시아 등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 올해 목표치인 나주 배 수출 물량 4,200톤을 달성한다는 포부다.

시는 나주 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전문단지 육성, △수출 포장재 지원, △해외 판촉행사 추진, △수출 물류비 지원, △수출 차액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및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규 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대한민국 명품 나주 배 수출을 위해 신별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작업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나주 배 판로 확보를 위한 신규시장 개척과 수출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수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흥군, '착한 여행지 만들기' 본격 시동

바가지요금 근절·친절한 손님맞이 캠페인 전개

장흥군이 지난 17일 정남진 장흥도요시장 일원에서 손님맞이 캠페인 전개를 통해 '착한 여행지'로의 장흥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어 화제다.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한 손님맞이, 청결유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홍보하여 상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자는 계획이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장흥을 다시 찾고 싶은 착한 여행지로 부각시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이 날 캠페인 활동에는 관계공무

원은 물론 시장 상인회와 함께 상가별 방문을 통한 동참 유도과 홍보전단지 배부를 통해 상인과 손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정직한 가격 제시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음식과 침구류 등의 청결 유지는 물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손님맞이를 강조하여 모두의 공감을 얻은 것이 그 반증이다.

장흥군은 '착한 여행지 장흥 만들기'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와 함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시책 추진을 통해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담양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 시행

담양군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대상포진 발병과 대상포진 후신경통 합병증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기간은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실시하며 약 92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대상포진 접종력이 없는 만 65세(1954. 12. 31. 이전 출생자)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증명서를 준비하고 선택 예방접종 신청서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제출해 의사의 예진 후 접종을 받는다. 접종 후에는 약 20-30분간 대기하며 급성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귀가해야 한다.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는 회복 후 6-12개월이 경과한 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백신 함유 성분이나 이전 접종 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중등도 이상의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등 급기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예방접종 비용에 부담을 갖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 무료지원 예방접종이 아닌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광군, 향화도 해역 보리새우 종자 방류

영광군은 지난 16일 지역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염전면 향화도 해역에 어린 보리새우(전장 1.2cm 이상) 240만마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보리새우는 이 지역에서는 일명 '오도리'로 불리며 영광을 대표하는 먹거리(9미)중 하나로 굴비, 민물장어, 맛조개, 백합과 더불어 고소득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보리새우는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잡히는 영광 특산물로 육질이 탄력 있고 식감이 좋아 회, 튀김, 구이, 볶음, 탕 등 다양한 요리 재료로 사용 되는 고급 어종이며 특히 갈집이 풍부해 골다골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방류해역은 보리새우 주 서식지인 영광철산타워가 위치해있고 주말장터 등의 행사가

열리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으로 이번 방류는 예년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실시해 어업 소득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보리새우 방류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도 "보리새우 어항이 좋은 것은 영광군이 지속적으로 방류를 실시한 결과로 방류를 하지 않았던 해와 비교해 보면 어획량이 약 7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폐장

총 입장객 수 5만 7천여 명·수입 5억 3600만 원 기록



'호캉스(Hotel+vacance)', '홈캉스(Home+vacance)' 쪽이 급증하며 전국의 대표 여름 피서지가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호성적 속 지난 15일 폐장했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날 6일 개장한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총 입장객 수 5만 7천여 명, 총 입장수

입(물품대여료 포함) 5억 3,600만 원을 기록하며 지난 15일 폐장했다.

지난해보다 입장객 수는 1만여 명, 입장 수입은 7,700만 원 줄어든 반면, 잦은 비와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 등 날씨 영향을 감안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평이다.

특히 약 1만2천여 명이 다녀간 지난 2010년 첫 개장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개장 10년 만에 약 5배가량 급속성장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것도 소독이다.

그간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1

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 깨끗하고 다양한 풀장,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입소문을 타면서 어린 아이를 둔 가족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올해 역시 매일 2천여 명의 물을 정화하는 순환식 정수시설과 물놀이장 곳곳에 80여 명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 것이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놀이장 내 배달음식 등 음식 반입을 전면 허용하며 바가지요금을 원천 차단한 것도 작중했다는 평이다.

군 관계자는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입장료 수익보다는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용객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방점을 찍고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미비점 등을 적극 보완해 내년엔 보다 깨끗하고 다양한 편의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촌 기자

내달부터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장성군이 오는 9월부터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장성사랑상품권은 장성군 관내의 가맹점 등록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5,000원 권과 10,000원 권 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 구매 시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구입처는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와 지역농협, 지역축협 본점 및 지점으로, 1인당 월 50만 원 이내로 구입이 가능하다.

군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장성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발행기념 및 추석 맞이 특별 할인기간'을 갖고 1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또 관내 축제의 판매부스를 임시 가맹점으로 지정해,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를 비롯한 장성군의 축제에서 주민들이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군은 포상금, 시상금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출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지급해, 장성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에 동참한다.



회순군,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상담실 운영

회순군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실은 지역 주민이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지하고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 특성에 맞춰 면사무소, 복지회관,

농협 등에서 진행한다. 중요 상담 대상인 30·40세대 직장인을 위해 회순광업소, 녹십자 회순공장에서도 매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상담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자기혈관 숫자알기 카드 제공 ▲검사 결과 이상자 치료 연계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10가지 생활수칙 안내 등을 진행했다.

회순=박순철 기자

